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42

삼손이 낸

수수끼끼

(사사기 13, 14장)

25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사는 포악한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죠.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잘 듣거라. 너는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너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다만, 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아이의 긴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란다.”**

마노아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들은 얘기를
마노아에게 전해주었어요.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부부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었어요.
그제야 마노아도 마노아의 아내도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죠.

“응애! 응애!”

그 어떤 아기 울음소리보다도 우렁찬 소리가
마노아의 집에서 들렸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가 태어난 거죠.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고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청년이 된 삼손은 힘이 장사였어요!
괴력의 소유자였죠.

또, 삼손은 남자였지만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사라질 거라는 걸 부모님을 통해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딤나’라는
지역에 놀러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삼손은 들뜨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말했죠.

“아버지, 오늘 딤나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을 봤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여인과 꼭 결혼을 하고 말 거라고요.
그러니 그 여인을 만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삼손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삼손아, 여기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도
너와 잘 어울리는 짝들이 많은데.
왜 하필 블레셋 여인인 게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다.”**

하지만, 마노아 부부는 아들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갈수록 좋아하게 되었고
‘딤나’ 지역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하루는 삼손이 딤나로 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을 공격해 왔어요.
하지만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이 있었죠.

“뭐야, 웬 사자가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삼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자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블레셋 여인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된 삼손이, 결혼식을 위해
다시 딘나로 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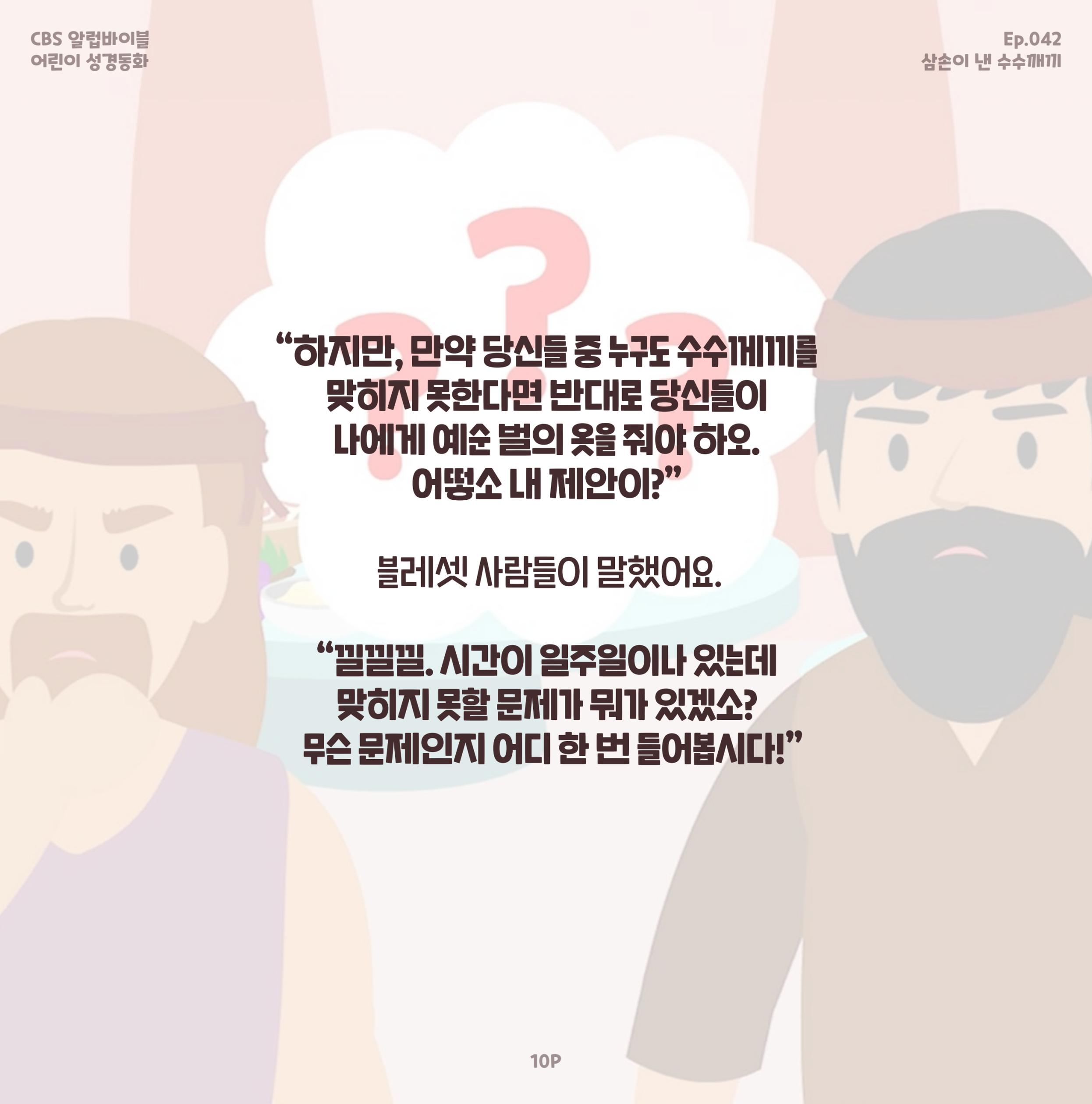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 전 자기가 죽인
사자의 가족을 보게 되었죠.
찢어진 가족 안에는 벌 떼가 집을 짓고
꿀을 만들고 있었어요!

“히히. 이게 웬 떡... 아니 웬 꿀이야.
입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가는 길에 꿀이나 빨아야지~”

삼손은 기분 좋게 딘나에 도착해서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삼손이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말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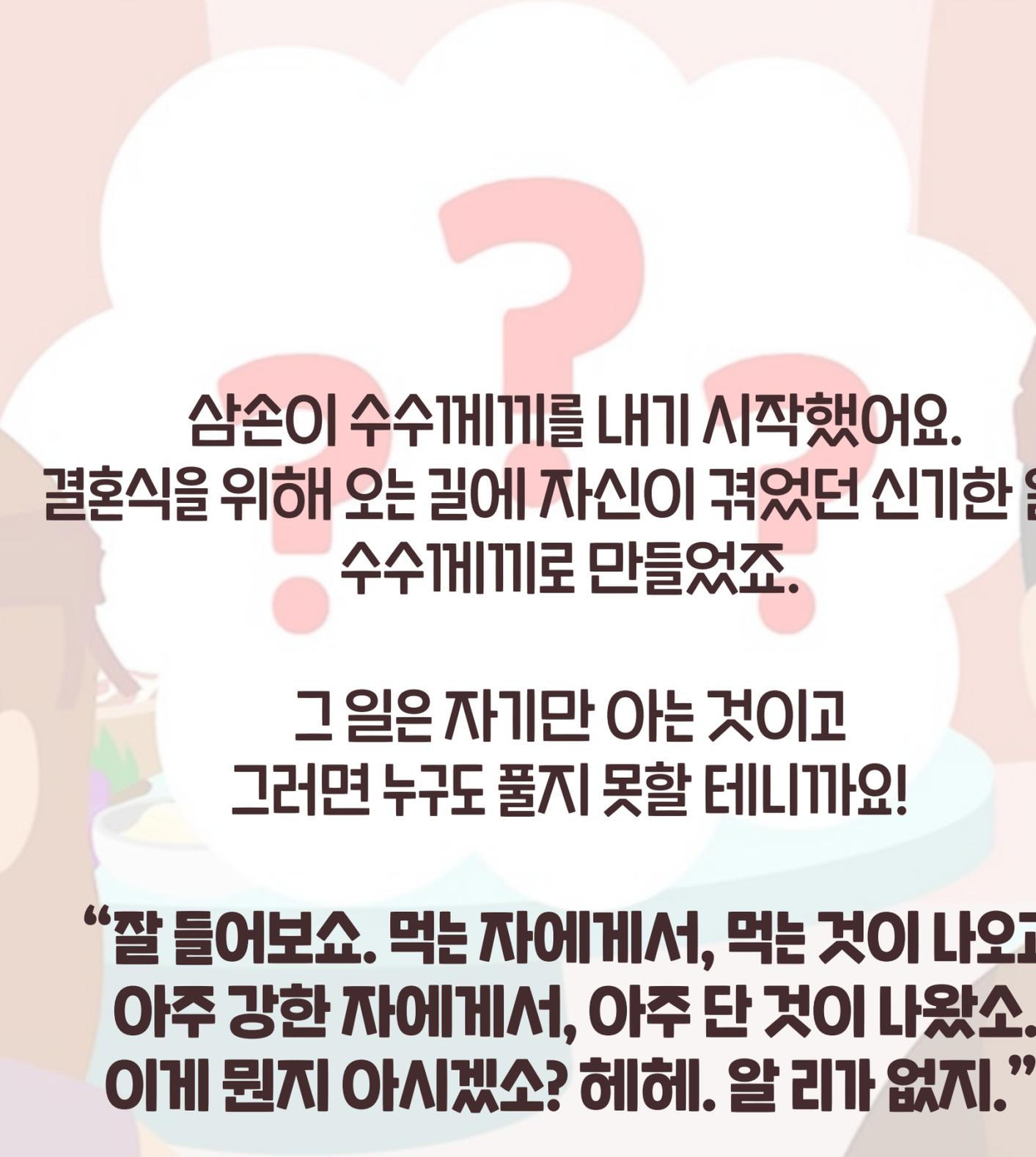
**“자자, 내가 당신들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앞으로 일주일 잔치 기간 동안 이 수수께끼를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베옷 서른 벌에 겹옷 서른 벌, 총 예순 벌을 선물로 주겠소.”**



**“하지만, 만약 당신들 중 누구도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한다면 반대로 당신들이
나에게 예순 벌의 옷을 줘야 하오.
어떻소 내 제안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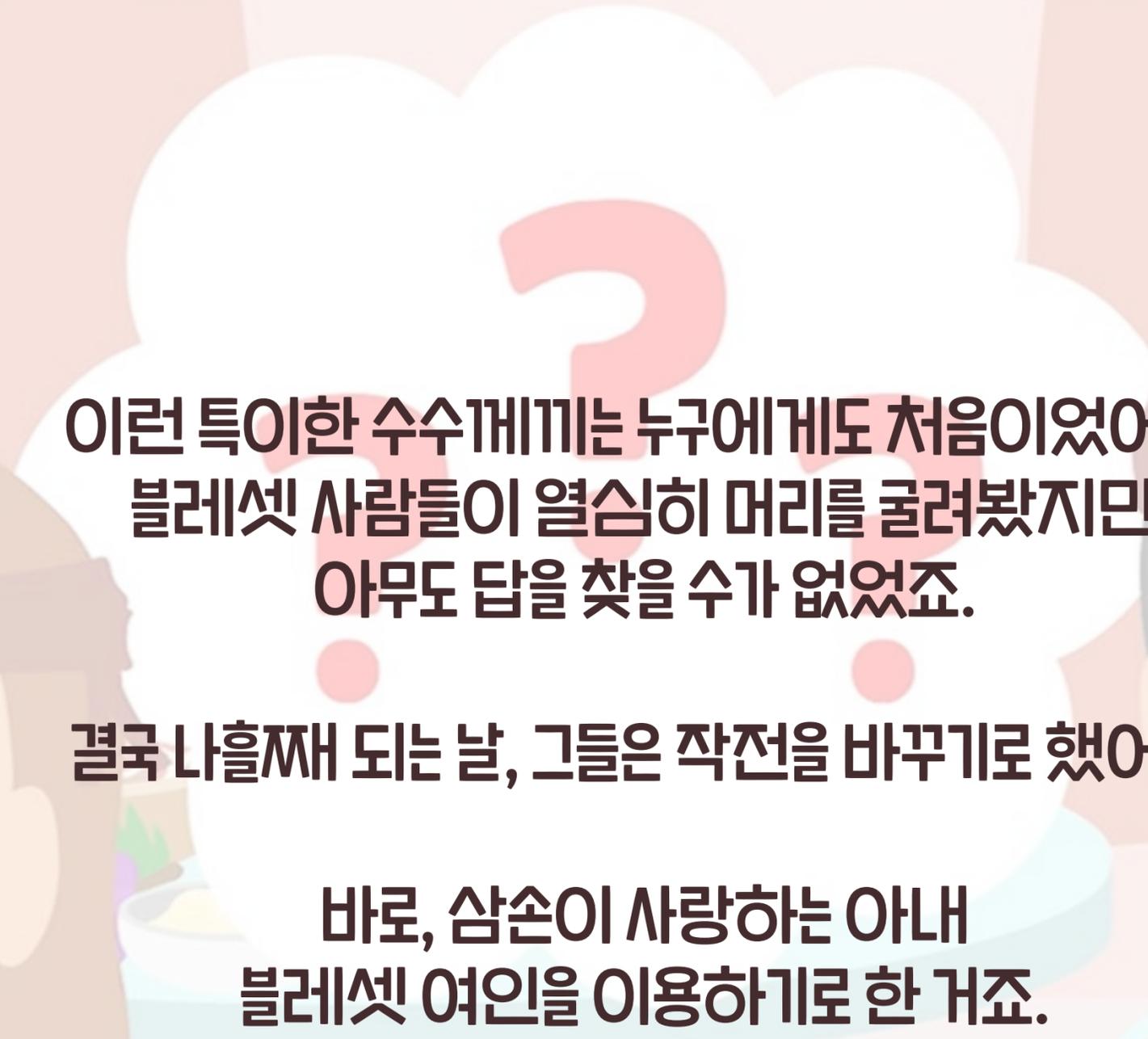
**“낄낄낄. 시간이 일주일이나 있는데
맞히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소?
무슨 문제인지 어디 한 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위해 오는 길에 자신이 겪었던 신기한 일을
수수께끼로 만들었죠.**

**그 일은 자기만 아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도 풀지 못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아주 강한 자에게서, 아주 단 것이 나왔소.
이게 뭘지 아시겠소? 헤헤. 알 리가 없지.”**



**이런 특이한 수수께끼는 누구에게도 처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지만
아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어요.

**바로,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
블레셋 여인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네 남편 삼손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고서는
우리 블레셋이 가진 물건들을 배배앗아 가려고 한다.”**

**“삼손을 여기까지 데려온 너의 책임도 있으니
어떻게든 삼손을 뒤흔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 오거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족의 재산을
우리가 몽땅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에 삼손의 아내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삼손을 구슬려
답을 알아내야 했죠.**

과연 그 작전은 성공했을까요?